

## 서유영(徐有英)의 기행시 고찰\*

- 임한정(臨漢亭)·금강산(金剛山)·송도(松都) 연작시 중심으로

진민희\*\*

### <차례>

1. 서론
2. 임한정(臨漢亭) 기행시
3. 금강산(金剛山) 기행시
4. 송도(松都) 기행시
5. 결론

### <국문초록>

19세기 한국 문학사에서 서유영(徐有英, 1801~1876?) 문학의 위상은 더 이상 이의가 없을 정도로 폭 넓고 뛰어나며, 그의 생애와 교유 양상 역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유영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후속 연구의 성과는 미진하다.

본고는 『운고시초(雲高詩抄)』 내의 기행시를 통해 서유영 시세계의 일면을 살펴 보려 한다. 서유영 기행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수가 해동악부·죽지사·잡영으로 악부시에 속한다. 둘째, 기행문학의 관점에서 관유기행문과 유배기행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동행인들이 대부분 시사(詩社)의 동인들로, 시회의 현장에서 창작되었다.

이에 본고는 서유영의 시사 활동이 두드러진 임한정(臨漢亭) 기행시, 관유기행의 특징이 잘 드러난 금강산 기행시, 유배기행으로 분류되는 송도(松都) 기행시를 선별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임한정과 송도 기행은 악부시에 속하며, 특별히 송도 기행시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한국고전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민선홍 선생님의 세세하고 애정 어린 조언과, 백진우 선생님의 정확하고 정밀한 조언에 후의를 입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 마음 깊이 감사사를 전한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는 서유영 시문학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한정 기행시는 서유영의 남사(南社) 활동과 지아자(知我者)에 대한 욕망이 특정 장소에 발현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총 세 차례의 여정을 통해 창작한 금강산 기행시는 신라 기원 도교와 불교적 색채가 짙은 그의 문학관이 확인 된다. 송도 기행시는 유배 도중이라는 특정 시기와 고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함께 반영되어, 명승 경관보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지역성을 부각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유득공(柳得恭)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日懷古詩)』를 계승하였다는 점도 주요하다.

서유영의 기행시는 본고를 통해 처음으로 조명되는 바이다. 본고는 그간 학계에 서 제대로 주목 받지 못했던 서유영의 시세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살피며 남사를 비롯한 19세기 경화세족 시사 활동의 구체적 정경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유영의 깊은 사유와 애정이 담긴 장소들에 대한 연구에도 본고의 작업이 일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서유영(徐有英), 운고시초(雲臯詩抄), 기행시, 해동악부, 19세기, 경화세족, 남사(南社)

## 1. 서론

서유영(徐有英, 1801~1876?)의 생애와 문학은 시고 『운고시초(雲臯詩抄)』, 야담 『금계필담(錦溪筆談)』, 장편 한문소설 『육미당기(六美堂記)』 등을 아울러 장효현을 통해 총괄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sup>1)</sup> 19세기 한국문학사에서 서유영 문학이 가지는 위상은 더 이상 이의가 없을 정도로 폭 넓고 뛰어나며, 그의 생애와 교유 양상 역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소설과 야담 연구에 비해 서유영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후속 연구의 성과는

1) 장효현, 「『육미당기』의 작가 재론」,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2;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徐有英 文學의 研究 補論」,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미진한 감이 적지 않다.<sup>2)</sup>

본고는 『운고시초』 내의 기행시를 통해 서유영 시세계의 일면을 살펴보려 한다. 서유영은 평생에 걸쳐 다수의 기행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를 테면, 임한정(臨漢亭)·금강산·송도(松都)·설악산·삼등(三登)·적상산(赤裳山)·도봉산 천축사(天竺寺)·해인사(海印寺)·영남루(嶺南樓)·신흥사(新興寺) 등을 유람하고 쓴 시문들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작가의 뚜렷한 개성이 감지되므로 주목을 요한다.

서유영 기행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수가 해동악부(海東樂府)·죽지사(竹枝詞)·잡영(雜詠)으로 악부시에 속한다. 둘째, 기행의 성격은 관유기행(觀遊紀行)과 유배기행(流配紀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동행인들이 대부분 시사(詩社)의 동인들로, 시회의 현장에서 창작되었다.

이에 본고는 서유영의 시사 활동이 두드러진 임한정 기행시, 관유기행의 특징이 잘 드러난 금강산 기행시, 유배기행으로 분류되는 송도 기행시를 선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임한정과 송도 기행은 악부시에 속하며, 특별히 송도 기행시는 서유영 시문학의 정수를 보여줘 의미가 깊다.

## 2. 임한정(臨漢亭) 기행시

『운고시초』에서 확인되는 임한정 기행시는 다음과 같다. 칠언고시 「전교행(箭橋行)」, 칠언절구 2수 「임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즉흥으로 읊다

2) 박우훈, 「雲阜 徐有英의 《玲瓏詩集》 研究」, 『동아인문학』 14, 동아인문학회, 2008; 박조은, 「雲阜 徐有英의 懷人詩一考」, 『온지논총』 45, 온지학회, 2015; 민선홍, 「19세기 전반 서유영의 新興寺 行적과 詩交」, 『한국한문학연구』 86, 한국한문학회, 2022; 진민희, 「19세기 서울 '중기 南社'의 결성과 활동 양상」, 『규장각』 6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4.

(臨漢亭歸路口號【沆瀣·海居·海士·藹士·原泉·匏園·西山·愚山·玉坡同來】), 무술년 여름에 지은 칠언절구 2수로 총 3제 5수이다.

『운고시초』에는 1838년(무술)과 이듬해 1839년(기해) 두 번의 관유와 시회의 정황이 묘사되었는데, 홍한주의 글에서도 동일한 두 날짜에 지은 시들이 보인다.<sup>3)</sup> 1838년 시회에는 홍길주(洪吉周, 1786~1841, 沆瀣)·홍현주(洪顯周, 1793~1865, 海居)·홍한주(洪翰周, 1798~1868, 海士)·홍우길(洪祐吉, 1809~1890, 藹士)·홍우건(洪祐健, 1811~1866, 原泉, 홍길주의 아들)·서세보(徐世輔, 匏園, 서유영의 족질)·정학연(丁學淵, 1783~1859, 西山)·최헌수(崔憲秀, 愚山)·신필영(申弼永, 1810~1865, 玉坡)·서유영 등 10명이, 1839년 시회에는 송주헌(宋柱獻, 1802~1857, 石經)·서유영, 그리고 홍한주와 그의 족질 홍우건·홍우길 등 5명이 참석했다. 동행인들은 정학연과 신필영을 제외하고 모두 남사의 동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유영은 거주지인 서울 남촌을 중심으로 심능숙의 남고시사(楠臯詩社)를 계승하여 남사를 결성하고 운영했다. 중기 남사의 1기는 남사의 수창시를 엮은 <남원창수집(南園唱酬集)>의 마지막 작품을 기점으로, 2기는 남사의 맹주였던 서유영의 지방관 부임년도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 중기 남사의 1기(1832~1841) 동인은 홍한주·서유영·송주헌·홍재봉(洪在鳳)·서기보(徐岐輔)·서세보·서득순(徐得淳)·최헌수·이승원(李升遠)·홍우길·홍길주·홍우건·이희(李▶土+喜)·이우(李埤) 등 총 13명이다. 이들은 서유영의 자택 남원(南園)과 현석동(玄石洞) 근처에 자리했던 홍한주 친인

3) 洪翰周, 『海翁詩藁』 卷3, <南園唱酬集鈔 下>, 「自臨漢亭還, 又會石經, 至蒼玉屏, 雲臯·原泉·藹士偕作」: 龍鍾衣袂酒痕霑, 湖墅山樓樂意兼. 到處名花皆綺坵, 自然佳句盡穠纖. 巖崖偈側雲生几, 院落幽閒月掛簾. 況復諸君新咏在, 彩毫何必夢江淹.

『海翁詩藁』 卷4, <芸堂初集鈔>, 「陪沆瀣·海居遊廣津臨漢亭, 時季夏既望, 會者凡一十人也」: 數家烟火到來深, 忽見危欄百尺臨. 樓迥松涼醒客耳, 江長帆影倒波心. 平蕪遠岸勞憑望, 芳杜斜陽悵漫吟. 何日弟兄同隱遁, 筇屨相向畫中尋.

척 소유 별서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중기 남사의 2기(1841~1865) 동인은 기존 동인에 더하여 서울의 신진 문인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권용정(權用正)·김상현(金尙鉉)·김영작(金永爵)·김재현(金在顯)·서당보(徐堂輔)·서승보(徐承輔)·서종순(徐種淳)·심두영(沈斗永)·윤정진(尹正鎭)·이만용(李晩用)·이민(李▶土+敏)·임백경(任百經)·조재응(趙在應)·홍현주 등이다. 2기는 19세기 중기에 형성된 서울의 대형 시사와 적극적인 교류를 이루었다. 주로 1860년부터 1865년까지 서유영을 필두로 남사의 문인들이 북사와 낙사 인물들과 시회를 벌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sup>4)</sup>

즉, 위 작품은 중기 남사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임한정 시회에 오가는 여정 중 지은 시이다. 칠언절구 두 편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자.

「임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즉흥으로 읊다.【항해·해거·해사·애사·원천·포원·유산·우산·옥과가 함께 왔다.】」

#### 제1수

강가 정자에서 하루 자고 다시 돌아가나니	一宿江亭即便回
서풍에 돌아갈 생각 들어 발길 재촉 금치 않네.	西風歸思不禁催
시선 닿는 곳마다 어린 슬픔 어찌 견딜까	那堪悵悵凝眸處
맑은 물 높은 산 하루 종일 왔노라.	清水高山盡日來

#### 제2수

살곶 다리[箭橋] <sup>5)</sup> 에서 나란히 말 타고 돌아가자니	箭橋一路竝鑣回
---	---------

4) 진민희(2024), 앞의 논문.

5) 전관교(箭串橋), 전곶교 등으로도 불리는데, 현재 중랑천(성동구 행당1동 58번지)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에는 송파나루 등 도성과 동남지방을 연결하는 주요통로 중 하나였다. 살곶 다리는 정종과 태종의 잦은 행차 때문에 세종 2년(1420) 5월에 처음 짓기 시작했으나 태종이 죽자 중단하였다. 그 후 백성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종

나무에 가득한 매미 울음소리 가는 객 재촉하노라.	滿樹蟬聲送客崖
물안개 낀 풀숲 십리 <sup>6)</sup> 다 가보고자	十里煙蕪行欲盡
푸른 내 가로지른 석교로 왔노라.	碧溪中斷石橋來

「무술년 여름, 나는 항해공을 모시고 임한정에서 노닐다가 이틀을 묵고 돌아갔다. 시사의 여러 벗 중에 나란히 말을 몰고 간 자는 모두 십여 명이었으니, 말 위에서 운을 불러 각자 절구 2수를 지었다. 살곶 다리의 주점에 당도하자, 원천이 글을 쓰고 애사가 읽었던 일이 멍하니 마치 어제 일만 같았다. 항해공이 갑자기 도산으로 돌아가시매 이제야 마침내 이 땅에서 영거를 맞이해 곡하니, 산천은 바뀌지 않았건만 공의 풍류와 문채는 다시 보기 어렵구나. 황공주로(黃公酒壚<sup>7)</sup>의 옛 슬픔이 마음에 감촉되니, 이전 시를 보운하여 느낌을 쓴다.」<sup>8)</sup>

제1수

일전에 동호에서 이틀 머물다 돌아올 때 기억하자니	記昔東湖信宿回
매미 소리 나무마다 늦도록 드높았더랬지.	蟬聲樹樹晚相催
지금 임한정 곁으로 난 길에는	卽今臨漢亭邊路
청나귀 보이지 않아 비 무릅쓰고 돌아가노라.	不見靑驢冒雨來

6년(1475)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성종 14년(1483)에 완성했다. 길이 76m, 너비 6m, 64개의 돌기둥을 세워 현존하는 조선 전기 다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마치 평지를 걷는 것과 같다하여 ‘제반교(濟盤橋)’라고도 불렀다(『慵齋叢話』卷9). 2011년 보물로 지정됐다.

6) 『大東地志』 卷1: 濟盤橋【距興仁門十里, 稱箭申橋】

7) 황공주로는 죽림칠현(竹林七賢) 왕옹(王戎)과 혜강(嵇康), 완적(阮籍) 등이 즐겨 가던 술집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회상할 때 흔히 비유된다. 혜강과 완적이 죽은 뒤, 상서령이 된 왕옹이 황공주로를 지나가다가 추억을 회상하며 관직에 매인 자신의 처지를 탄식했다.(『世說新語』, 「傷逝」)

8) 徐有英, 『雲臺詩抄』, 「戊戌夏, 余陪沆瀣公, 遊臨漢亭, 信宿而返, 詩社諸友之聯鑣者, 凡十餘人, 馬上呼韻, 各賦二絕. 到箭橋酒店, 原泉書之, 藹士讀之, 忽忽若昨日事, 而沆瀣公遽遊道山, 今酒迎哭靈車於此地, 山川無改, 而公之風流文采不可復見矣. 黃壚舊悲振觸于中, 步前韻以志感云。」

## 제2수

세월 다 보내니 다시 돌아오지 않고	送盡長江不復回
반평생 이 속에서 재촉할 뿐.	年光半是此中催
황공의 술집엔 그 누가 있길래	黃墟舊畔人誰在
강산엔 보름달만 왔고?	惟有湖山滿月來

1838년 6월 보름[季夏旣望]<sup>9)</sup>, 남사 동인들은 홍길주를 필두로 임한정에서 하루를 묵었다. 시회를 파하고 돌아갈 때에는 동행인 10명이 각각 말 위에서 칠언절구 2수를 읊었다. 이듬해 1839년에는 ‘이틀을 묵고 돌아갔다[信宿而返]’라 하였고, 주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곶 다리의 주점에서 하루를 더 묵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행은 돌아가기 아쉬워 ‘물안개 낀 풀숲 십리 다 가보고재[十里煙蕪行欲盡]’ 일부러 살곶 다리를 건너가는 길을 잡았다. 이는 성저십리를 가리킨다. 성저십리는 도성을 감싸고 있는 사대문 밖 십리 안쪽을 뜻하는데, 행정적으로는 한성부에 속한다. 살곶 다리는 성저십리의 동교(東郊)에 해당했다. 즉, 서유영과 홍한주의 시를 통해 남사의 임한정 기행이 ‘남촌-임한정 시회-전교-주점-홍인지문-남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1839년 시에는 사망한 홍길주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정서가 주로 표출되었다. 그리움은 1838년 시의 동일 운자, 어휘 반복, 그리고 동일한 풍경과 대비되는 홍길주의 부재 등으로 드러났다. 매미 소리 드높던 임한정의 길은 청나귀(홍길주) 없이 비만 내리고, 일행이 흥에 차서 시를 읊던 주점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회상할 황공주로가 되어버렸다. 이에 화자는 인생무상을 읊을 뿐이다. 홍길주를 청나귀에 비하고, 그의 서거를 ‘도산으로 돌아갔다[遽遊道山]’고 비한 구절은 도교적 심상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들이 시회의 장소로 삼았던 임한정은 풍산 홍씨 가문의 유서 깊은 별

9) 「陪沆瀣·海居遊廣津臨漢亭，時季夏旣望，會者凡一十人也。」

서 중 하나이다. 선조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와 혼인해 영안위(永安尉)에 봉해진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손자 홍중기(洪重箕, 1650~1706)가 처음 한강 가에 별서를 마련하였으니, 바로 고심정(古心亭)과 임한정이다. 이 두 정자의 편액은 송시열이 써 줬다고 한다.

임한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훗날 임한정의 주인이 된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임한정후기(臨漢亭後記)」와 「임한정이게지(臨漢亭移揭識)」로 다룬 바 있다. 백여 년 세월을 지낸 후 정자가 폐치 되자, 아우 흥현주와 쌍포(雙浦) 서쪽 땅을 새로 사서 정자를 짓고 편액을 옮겨 걸었다고 한다.<sup>10)</sup> 새 정자는 옛터에서 수백 걸음도 되지 않으면서도 마찬가지로 한강을 임하고 있다고 했다.<sup>11)</sup> 쌍포는 잠실섬에서 갈라졌던 한강 물길이다 시 합쳐지는 곳을 이르는데, 뚝섬 인근 포구로 여겨진다.

한편, 홍주원의 후손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1766년 초가을에 ‘남산 아래 큰 강 흐르고, 높은 누각은 맑은 수면 임해 떠있도다.[終南山下大江流, 高閣平臨鏡面浮]’라고 읊어, 임한정의 원위치를 남산 아래 한강변이라 하였다.<sup>12)</sup> 이는 한남동 인근 두모포[豆毛浦: 두물포·두물머리·두

10) 한편, 흥현주는 남촌에 해당하는 훈도방(薰陶防) 이전동(履塵洞)에 거주했는데, 쌍포에 별서를 세우고 ‘쌍포별관(雙浦別館)’이라 했다. 홍석주·홍길주·흥현주 삼형제와 그의 부모 홍인모(洪仁謨, 1755~1815)와 그의 부인 영수각 서씨(令壽閣 徐氏)가 지은 「구호십육영(鷗湖十六詠)」에도 ‘쌍포누대(雙浦樓臺)’가 포함되었을 정도로, 쌍포는 흥현주 집안의 장소애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11) 洪奭周, 『淵泉集』卷19, 「臨漢亭移揭識」: 周茂叔先生, 世家春陵之濂溪上, 晚居九江, 移溪號於廬阜之水, 新安有紫陽山, 朱夫子居閩中, 以名其書堂. 夫子之先, 新安人也, 記曰, 樂樂其所自生, 禮不忘其本, 嗚呼! 斯亦可以教民孝矣哉? **我五世祖晦溪公作亭漢上, 尤庵宋文正公題其扁曰臨漢, 歷百餘歲而亭廢, 吾弟顯周新買屋雙浦之西, 移臨漢之扁以揭之, 其亦猶二夫子之意歟? 春陵新安之於江閩. 相距蓋千里而遙, 今新亭於臨漢舊址, 往來不數百武, 其臨漢水上則均也, 其名也不尤宜哉. 漢水自東北來累數百里而至亭下, 自是以往. 益混滄汪洋以放于大海, 不止不迷其源者, 其流固如是也. 嗚呼! 凡我後人登斯亭觀斯扁, 而觀於是水者, 亦可以油然感矣.**

12) 洪良浩, 『耳溪集』卷8, 「臨漢亭」

못개로 추정 가능하다. 홍양호의 글은 홍현주가 정자를 이설하기 전 지은 작품이므로 그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sup>13)</sup> 홍현주는 이렇듯 풍산 홍씨 집안의 애정이 깃든 임한정에 남사를 초청해 모임을 꾸린 것이다.

서유영의 두 시가 유의미한 이유는 조선후기 주요 별서로 꼽히는 임한정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임한정 관련 시문에는 임한정의 위치가 ‘한강 변에 임한’ ‘쌍포’ 주변에 있었다는 정보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유영은 유독 ‘살곶 다리’를 임한정 기행의 주요 장소로 꼽았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남지방으로 나가는 주요 통로였던 살곶 다리는 현재 중랑천에 위치하면서 성수동과 행당동을 연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한정 또한 쌍포와 가까운 현 성수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유영이 살곶 다리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의 다른 시 「전교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무는 해 떨어질 듯 말 듯	欲落未落山日暮
모랫가 숲 참새 떼 소란스러워라.	羣雀亂噪沙上樹
살곶 다리 한쪽으로 봄 물 푸르고	箭橋一面春水綠
다리 장식 가지런히 비룡 보호하네.	雁齒齊整飛虹護
들판 도처에 석책 세우고	平郊到處樹石欄
멀리 보이는 말 떼 때때로 흩어졌다 모이누나.	遙看馬羣時散聚
세종 임금님 시절 번성했던 목축	英陵盛際繁牧畜
사옹원 번쩍이길 아침놀 같았다지. <sup>14)</sup>	天廚爛如雲錦鋪

13) 이상 임한정의 위치에 관한 설명은 이종목의 글 참조(『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동호편』, 경인문화사, 2016, 260~277쪽).

14) 당현종 때 감목사(監牧使) 왕모중이 수단 필의 말을 잘 길러서 각 색깔별로 대열을 나누어 놓으니, 바라보기에 마치 아침놀[雲錦] 빛과 같았다는 고사 인용했다(『舊唐

당시의 팔준마 비룡이라 불렀으니 <sup>15)</sup>	當時八駿號飛龍
【태조 때 타셨던 바라.】	【太祖時所御】
현결찬 말갈기 <sup>16)</sup> 어지러이 높게 날았도다.	霧鬃風鬣紛軒蒼
지금 목어사(牧圍司) <sup>17)</sup> 는 말 기르는 법 잊고	卽今圍人失馴養
태반이 지치고 병든 말이라 <sup>18)</sup> 수를 채울 수 없구나.	太半玄黃不滿數
내 와서 돌아보며 일탄식 하나니	我來顧詹一嘆息
누가 마정(馬政)이 급선무임을 알꼬?	誰知馬政爲急務
촉 언덕에서 한명(汗明)의 눈물도 보지 못했고	蜀坂不見汗明泣
저름 밭에서 백락(伯樂)이 돌아와줄 때도 만나지 못했구나. <sup>19)</sup>	糞野未遇伯樂顧
구장은 허박한데 추목까지 관장하니	駒場虛薄掌葛牧

書』卷106「王毛仲列傳」: 虬從東封, 以諸牧馬數萬匹從, 每色爲一隊, 望如雲錦 玄宗益喜).

- 15) 팔준마는 태조가 정벌하거나 사냥할 때 타던 여덟 마리 준마로, 세종 때에 호군(護軍) 안건(安堅)이 명을 받아 그림을 그렸고 김현전의 신하들이 찬(贊)을 지어 후세에 전하였다. 팔준마는 횡운골(橫雲鵬)·유린청(遊麟靑)·추풍오(追風烏)·발전자(發電赭)·용등자(龍騰紫)·응상백(凝霜白)·사자황(獅子黃)·현표(玄豹) 등이다(『龍飛御天歌』; 『東閣雜記 上』 「本朝璿源寶錄」; 『海東雜錄』 卷1 「本朝 安堅」).
- 16) 송나라의 주자지(周紫芝)의 「명황갈고(明皇鞞鼓)」에 “바람이 말갈기를 들추어 마 상을 춤추게 하네.[風鬣舞馬牀.]”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 17) 살곳이 목장의 관아를 목어사라 했는데, 제조공 1인과 증대부 2인, 첨정 상사 2인, 감목관 중사 20인, 서리 2인, 조례 2인으로 구성되었다. 목어사는 8도 목장의 정사까지 총괄했다(丁若鏞, 『輿猶堂全書』, <經世遺表>卷二, 「夏官兵曹 第四」).
- 18) 지치고 병든 말[玄黃]은 『詩經』 「卷耳」의 “저 높은 산등성이 어떻게 올라갈까, 내 말이 피곤해 누렇게 변했으니.[陟彼高岡 我馬玄黃]”라는 구절에서 왔다.
- 19) 춘추 시대 초나라 한명이 춘신군에게 “늙은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태항산(太行山)을 오르는데, 발굽은 갈라지고 무릎은 꺾이고, 꼬리는 헤지고 가죽은 문드러져서 온몸에 땀을 쏟으며 산길에서 온 힘을 다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말을 잘 감정하는 백락이 이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 천리마를 어루만지며 통곡하고 옷을 벗어 걸쳐 주었습니다. 천리마가 이에 머리를 들고 슬프게 부르짖으니,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마치 쇠소리와 같은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는 백락이 자기를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비천하게 산지가 오래인데 주군께서 유독 저를 전불해 주시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戰國策·楚策』).

팔로도 똑같이 폐단이 벌써 고질병 되었네. 八路同然弊已痼  
 우승(郵丞)께 말 한 마디 부치나니 말 기르기 성실히 전념하소. 寄語郵丞勤攻駒  
 괴를 삼가 막아 끝내 좀 먹지 않도록. 慎防蒯卒勿生蠹

「전교행」은 <칠언고시>편에 속하는 해동악부이다. 서유영은 특히 해동 악부와 죽지사를 창작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가 젊었을 때 홍한주와 더불어 해동악부와 죽지사 수백 수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이나, 안타깝게도 모두 유실하여 전편을 살필 수 없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고시초』에 수록된 시 다수가 해동악부와 죽지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서유영의 전반적 시세계 연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조선후기 시에는 삶의 보편적 의미통일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완결성·자족성이 추구되기 보다는 대체로 사회와의 연속이나 심정의 자유로운 표출이 중시된다. 후기 시에서 환운과 잡언 형식을 취한 비정형적 고시(古詩), 산문적 구문(構文), 우언(寓言), 대화체를 사용한 장편 고시, 서사적 요소가 개입된 서술적 서정시 등이 다수 출현하게 된 것은, 시인이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상을 개념화하는 데서 형식 실험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동악부체는 이 서술적 서정시 중에서 하나의 독립된 양식으로서 성립되었다.<sup>21)</sup>

한국한시는 신라 말 최치원(崔致遠, 857~?)등의 당의 빈공과(賓貢科)

20) 徐有英, 『錦溪筆談』 131화: 余少時, 與洪海士爽周, 作海東樂府竹枝詞數百首, 皆遺失記.

洪翰周, 『海翁詩藁』 卷2, <南園唱酬集鈔>, 「病枕無聊, 偶得絕句十二首, 雖無藻思工緻之可稱, 亦足以續前者未盡之懷, 兄須覽而和之, 又轉致石湖否?」 其二: 先自吳園唱小詩, 松陵皮陵雅相宜. **東韓樂府無多在, 會見徐卿演竹枝.【雲臺要余做柳冷齋懷古, 賦海東竹枝詞故云爾】**

21) 심경호, 「조선후기 한시의 자의식적 경향과 해동악부체」, 『한국문화』 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1, 26~27쪽.

출신 학자들에게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한시의 출발은 당시(唐詩)를 모범삼아, ‘악부-비악부’가 아닌, ‘고체-근체’를 기본 대립항으로 가진다. 고려 중엽 이후 조선전기까지 ‘사(詞)’는 곧 ‘악부(樂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사는 악장(樂章)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악부·악장·사의 명칭이 혼용되며 악부가 하나의 양식으로 성립될 수는 없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명대 전후칠자(前後七子)의 악부제 한시에 영향을 받아 조선 문인들의 악부제 한시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악부제 시들은 주자주의(朱子主義)와 복고주의(復古主義)를 따르는 전통주의자와 새로운 시정신을 확립하려는 진보적 문예주의의 대립으로 다양한 형식이 도출되었다. 1)고악부(古樂府)를 따른 의고악부(擬古樂府), 2)민속풍의 소악부(小樂府)·죽지사(竹枝詞)·잡가요(雜歌謠), 3)잡언(雜言) 형태와 환운법(換韻法)에서 연상되는 악곡성(樂曲性) 잡가요와 영사악부(詠史樂府) 등이 그것이다. 조선후기 악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결합 양상으로 발전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했을 때, 「전교행」은 영사악부에 해당하는 해동악부가 된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6구는 현재 살곶 다리의 모습을 묘사했다. 봄날 석양 아래, 다리는 여전히 말 떼를 보호하는 석책 사이에 서있다. 7~10구는 살곶 다리와 관련된 조선 초기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했다. 서유영은 살곶이 목장 운영을 자주적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살곶은 조선 초기부터 요지로 인식되었다. 도성 근처에 위치하면서 너른 평야를 갖고 있어 태종 12년(1412)에 각종 연회와 매사냥을 열고, 이듬해에는 국영 목장을 지어 운영했다. 또한 동남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중랑천 천변 아래 뚝섬과 아

22) 심경호(1981), 위의 논문, 27~29쪽.

차산 밑에 이르는 지역이 넓은 평지(살곶이벌)였기에 목초지를 마장으로 조성하고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몽골에 대비해 궁기병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주변 행당산에는 마조단(馬祖壇)과 같은 터가 남아 있다.<sup>23)</sup>

11~12구는 현재 퇴락한 목장을 묘사한다. ‘태반이 지치고 병든 말’이다. 조선전기는 말 사육을 주요 국가사업으로 운영했으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의해 군마 사육을 억제 당하고, 살곶이 목장 역시 훈련도감 군병들의 거주지로 바뀌었다. 조선후기에는 한강변에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도성 사람들의 먹거리를 조달하는 시장과 경작지로 변했다.<sup>24)</sup>

이후 결구까지는 서유영의 평이 이어진다. 살곶이 목장의 퇴락을 탄식하고 현재 목어사에게 마정의 급선무를 촉구했다. 그러나 실상 서유영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14·15·19·20구에 보이는 한명과 백락, 그리고 이 고사에 등장하는 천리마와 춘신군의 등장을 주목해야 한다. 한명과 춘신군의 대화에서 백락과 천리마는 액자식 형태의 이야기로 존재한다. 누가 봐도 늙고 병들며 소금 수레나 끄는 말을 보고, 백락은 통곡을 하며 옷을 벗어 걸쳐주었다. 이에 천리마는 지아자(知我者)를 만난 기쁨과 서러움에 슬프게 울부짖었다. 한명은 자신을 천리마에 빗대어 춘신군에게 왜 백락과 같은 이가 되지 못하느냐 물었다. ‘축 언덕에서 한명의 눈물도 보지 못했고, 거름 밭에서 백락이 돌아봐줄 때도 만나지 못했구나.[蜀坂不見汗明泣, 糞野未遇伯樂顧]’라는 구절은 현재 서유영 자신에 비하는 말

23) 한양대 중앙도서관 화단에 마조단 옛터 비석이 있다. 전국 목장과 말 사육을 책임진 사복시 소속 왕실목장 살곶이 목장에서 마조제(馬祖祭)가 열렸다. 마조단은 말의 수호신 마조, 최초로 말을 기른 선목(先牧), 말을 처음 탄 마사(馬社), 말을 해롭게 하는 마보(馬步)의 신위를 각각 모셨다. 마조제는 1908년 폐지됐다.

24) 이상 살곶 다리와 마장의 역사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했다.(홍금수, 『箭串場の景觀變化』, 『문화역사지리』 1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이흥두, 「조선전기 畿甸의 馬牧場 설치」, 『서울과 역사』 93, 서울역사편찬원, 2016; 노주석, 「몽골 말과 조선 활로 무장한 ‘궁기병’ 육성의 흔적」, 『한겨레 서울&』, 2018.05.31.).

이다. 자신은 거름 밭에서 구르는 상황에서 백락도 못 만났고, 춘신군 같은 사람도 없어서 올 기회조차도 없다.

태조 대의 팔준마는 천리마에 비하는 명마였다. 세종 대에는 이러한 말들이 목장에 가득했으나, 현재는 목어사의 무능 때문에 준마도 찾기 어렵다. 목어사의 재능과 책임은 백락과 같이 명마를 알아보고 기르는 데에 있다. 동양에서는 백락의 고사에 지아자에 대한 욕망을 빗대고는 했다. 이에 서유영이 한명과 백락의 고사를 살곳이 목장에 인용한 것은 다름 아닌, 좋은 인재를 찾지 않는 위정자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탓하기 위함이었다. 그 좋은 인재, 곧 명마는 자신을 의미한다. 결국 서유영은 ‘누가 마정이 급선무임을 알꼬?’[誰知馬政爲急務]라며 일탄식 한다. 그리고 우승에게 말 기르기에 성실히 전념하라는 당부를 전한다.

지아자에 대한 욕망은 초기 남사 남고시사에서부터 중기 남사에까지 이어져 온 주요한 정서이다.<sup>25)</sup> 임한정에서 열릴 남사 시회를 위한 기행에서, 서유영이 살곳 다리에 강한 장소애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처럼 「전교행」은 지역사를 논하는 영사시의 형태를 띠면서, 화자의 사회 비평적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3. 금강산(金剛山) 기행시

서유영은 금강산을 총 세 번 유람하고 여러 시문을 지었다. 먼저 「금성(金城)<sup>26)</sup> 사군(使君) 취전(翠田) 및 이운천(李芸泉)과 금강산으로 향하며(與金城使君翠田及李芸泉【▶土+敏】，向金剛山)」, 「수미답에 올라 운옥병

25) 진민희, 「沈能淑의 楠阜詩社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26) 강원도 칠원군 금성현을 뜻한다. 풍악산에서 겨우 120리 떨어졌다고 한다(吳瑗, 『月谷集』 卷9, 「金城小記」).

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비에 막혀 돌아오다(登須彌塔, 欲訪雲玉屏, 阻雨而返).」 5수, 「만폭동(萬瀑洞)」, 「불지암(佛地菴)」, 「유점사에서 화은당에게 증별시를 주다(楡站寺贈別華隱堂).」 2수, 「해금강에서 돌아가는 길에 내산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海金剛歸路, 望見內山積雪)」, 「옥류동(玉流洞)」, 「비봉폭(飛鳳瀑)」, 「구룡연에서 폭포를 보다(九龍淵, 觀瀑布).」 등 칠언절구 9제 14수의 연작시, 「승려 퇴운당【금강산에서 만난 승려이다】(釋頽雲堂【金剛山有逢僧】)」 칠언절구 1수가 『운고시초』에 수록되어 있다. 또 흥한주의 「운고자의 동유기 발문(跋雲臯子東遊記)」을 보면, 유기도 따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흥한주의 발문을 통해 서유영의 유기가 어떠한 내용과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운고의 유람에는 규정이 함께 했으므로 각자 유기를 지었다. 운고는 상세하나 모두 갖추었고, 규정은 간결하나 정돈되었다. 번다함 없이 차라리 요약하여 딱 알맞게 꼭진함은 규정의 글이고, 크건 작건 버려두는 것 없이 사실을 기록함은 운고의 글이다. 비록 옥의 티와 광택을 서로 드러나게 할지라도 그들이 산수를 모범삼고 그림처럼 점철한 것은 요컨대 서로 백중을 겨룸이니, 상세하고 간결함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후대 사람들이 만약 이 산의 지남(指南)을 삼고자 한다면 그래도 운고를 따르지 않겠는가? 두 사람의 기이하고 오묘한 글은 이전 사람들이 본 바에 지나지 않고, 이전 사람들이 보지 못한 바는 두 사람 역시 보지 못한 것이지만, 내연 천불동과 같은 것은 모두 일만 개 산 속에 있어 아슬아슬한 잔도 끝의 정상과 접점이 쌓인 산에 증첩된 고개는 아득하여 알 수 없는 바이니, 원숭이나 날다람쥐 같은 날래이 아니면 끝내 이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기록은 모두 중하게 의미를 둘 뿐이다.

대개 영험하고 빼어나며 준걸차고 특별한 산은 조선[海表]<sup>27)</sup>에 서려 있는데,

27) 해표는 해외를 뜻하나 본문에서는 조선을 가리킨다(『書經·立政』: 其克詰爾戎兵, 以陟禹之迹, 方行天下, 至于海表, 罔有不服, 以觀文王之耿光, 以揚武王之大力.).

백리 정도 이어져있어 사람들이 그 승경을 제대로 다 볼 수 없음이 이와 같았다. 왕개보가 “샘구멍 끝까지 보자 해도 그럴 수 없으니, 끝내 서글피 바라보다가 부질없이 돌아가노라.” 라고 말한 적 있으니,<sup>28)</sup>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아아! 우리나라는 모두 산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는 산 사람[山人]이다. 유유히 생사를 산 사이에서 하니, 좀 벌레나 우물 속 개구리처럼 저 혼자 즐거워 하다가, 세상에 크고 특별한 세계가 있는 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산 사이의 산에서도 본 것이 있고 못 본 것이 있다. 백발의 노년에 이르러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 같은 이는 다만 두 사람이 기술한 말만 취한다. 종이 위 점을 가리키면서 정신은 내달리고 눈 끝은 멈추지 않으니, 두 사람은 이를 보며 마땅히 곁곁 한 번 웃으라. 신해년 8월 아름다운 날 아침 비 속, 해사 쓰다.<sup>29)</sup>

규정(圭庭)은 서유영의 삼종질 서승보이다. 서유영과 서승보는 1851년 금강산 유람을 떠났고, 각자 유기를 지었는데 이를 보고 흥한주가 발문을 썼다.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조선인은 ‘산 사람[山人]’이라고 표현한 점이 흥미롭다. 금강산 유기에 대한 발문이기에 산을 거듭 강조했다. 산으

28) 개보는 북송 신종(北宋 神宗)의 문신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자이다. 본문은 그의 시 「題舒州山谷寺石牛洞泉穴」(『臨川文集』卷12) “水泠泠而北出, 山靡靡而旁圍. 欲窮源而不得, 竟悵望以空歸.”의 구절을 인용했다.

29) 洪翰周, 『海翁文藁』卷5, 「跋雲臯子東遊記」: 雲臯子之行也, 圭庭與焉, 故各著遊記, 而雲臯繁而賅, 圭庭簡而整, 寧約毋多, 稱停有曲折者, 圭庭之文也, 細大不捐, 主於摭實者, 雲臯之辭也. 雖使瑕瑜互現, 其摸山範水, 點綴如畫, 則要之相伯仲, 究未可以繁簡軒輊也, 而後之人如欲爲是山之指南, 倘有從雲臯者乎? 然二子之搜奇剔幽, 不過前人所嘗見, 其所未見者, 二子亦未之見, 如內淵千佛洞, 皆在萬山中, 危棧絕頂, 重巒複嶺, 杳不知所之, 非猿猱鼯之捷, 終無以至, 故二子之記, 皆重致意而已. 蓋山之靈秀傑特, 蟠屈海表, 綿延幾百里, 人無得以窮其勝者, 有如此焉, 王介甫有曰欲窮源而不得, 竟悵望而空歸, 其此之謂也, 嗟呼! 我國皆山也, 生乎我國者山人也, 悠悠焉生死山間, 如書蠹井蛙之自樂, 不復知世有大地別界, 而其於山間之山, 亦有見有不見, 如余也迄老白首不一見, 徒取二子記述之語, 指點紙上, 神馳目斷之不已, 二子見之, 當靦然一笑也. 辛亥八月穀朝雨中, 海士書.

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에서 가뜩이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신세인데, 흥한주 자신은 서유영과 서승보처럼 금강산 유람도 못해봤다고 자조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흥한주는 1853년 가을, 서유영과 금강산으로 향했다.

흥한주의 발문에서 포착되는 서유영의 글쓰기 특징은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되, 그 사실의 근원을 끝까지 궁구한다는 점이다. 후술할 서유영의 시에서도 이 구절이 보인다. 1851년 흥한주의 발문 이후에 쓴 시이므로 ‘근원을 끝까지 궁구하고자 하는’ 작자의 성향과 구절은 서유영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흥한주가 언급한 서유영의 유기가 현재 전하지 않는 시점에서 『운고시초』의 금강산 유람시 작품군은 당시 서유영이 얻은 문학적 영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승려 퇴운당【금강산에서 만난 승려이다】」은 서유영이 총 3차에 걸쳐 금강산을 유람했다는 사실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골짜기 하나 흰 구름 꺾다고 객들은 사흘을 묵는데	一洞白雲三宿客
만 개 산 붉게 물들어도 스님 홀로 깃드누나.	萬山紅葉獨栖僧
오직 이 구절만 참선계 삼아서는	惟師此句參禪偈
오래도록 밤낮으로 불등에 예불 올리네.	長向昏晨禮佛燈

【나는 일찍이 금강산에 세 번 들어갔는데, 퇴운과 제일 친했다. 아마도 그는 면벽한지 삼십년이 되었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을 것이다. 계축년 가을에 석취·해사·운천·취전 여러 공들과 함께 원통암에 이르렀는데 비에 막혀 사흘을 묵으면서 퇴운과 함께 시를 창화했다.】

【余嘗三入金剛，與頽雲最親。蓋面壁三十年，未嘗下席。癸丑秋，與石醉·海士·芸泉·醉田諸公至圓通菴，滯雨三宿，與頽雲賦詩唱和】

「승려 퇴운당」에 해당하는 금강산 유람은 1853년 가을, 윤치정(尹致定, 1800~1865, 石醉)·흥한주·이희<sup>30)</sup>·이민<sup>31)</sup>과 동행했으며 이희가 금성현령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흥한주의 발문은 1851년(신해)

여름에 지어졌고, 퇴운당은 1853년(계축) 가을 유람에 만났다.<sup>32)</sup> 아쉽게도 흥한주 문집에서는 금강산 유람에 대한 글을 찾을 수 없다.

다음은 1852년부터 1854년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금강산 유람 연작시의 첫 작품 「금성 사군 취전 및 이운천과 금강산으로 향하며」이다. 관문에서 시작하는 여행길에 느꼈을 서유영의 설렘이 가득하다.

뿔피리 불며 관문 나설 제 정중앙 높다랗게 뜬 해	吹角官門日正高
동쪽을 바라보니 구름 뚫고 나온 봉래산	蓬萊東望出雲豪
가을 산 외길에 흥 탈만 하나니	秋山一路堪乘興
붉고 푸른 절벽 객 도포에 비치누나.	翠壁丹崖映客袍

이희·이민과의 유람은 이희가 금성현령으로 있을 때 다녀왔다. 이희는 1851년 12월에 금성현령을 제수 받은 후 1852년에 부임하여 1854년까지

30) 이희(李士喜, 1810~?)의 본관은 우봉(牛峯)이고 취전은 그의 호이다. 자는 양부(良夫)이다. 이조판서를 지낸 이광문(李光文)의 5남 중 막내이다. 1846년(헌종 12) 병오 식년시 진사 3등에 올랐다. **1851년(신해) 12월 과천현감(果川縣監)에서 금성현령(錦城縣令), 1854년(갑인) 12월 영유현령(永柔縣令)**, 1862년 황해도 금천군수(金川郡守), 1863년 전라도 무주부사(茂州府使), 1875년 10월 경기도 용인현령(龍仁縣令), 12월 삭녕군수(朔寧郡守), 1877년 경기도 이천부사(利川府使) 등을 지냈다. 홍직모(洪稷謨)의 딸과 혼인했다. 특히 흥한주의 『해옹고』 <주계기유집(朱溪紀遊集)>은 이희가 전라도 무주(주계) 태수로 있을 당시에 흥한주가 전리방축에서 풀려난 뒤 졸하기 전에 이희를 찾아가 유람하고 지은 시집이다. 이는 흥한주 몰년의 마지막 작품들로 추정되어 의미가 깊다. 아들 이호익(李鎬翼)이 조부 이재(李緯)의 『화천집(華泉集)』을 1886년 충주 목사 재임 중 활자로 간행할 때 쓴 발문을 통해 이희의 몰년은 그 이후로 추정된다.

31) 이민(李士敏, 1808~?)의 본관은 우봉이고 운천은 그의 호이다. 자는 학부(學夫)이다. 부친은 이광정(李光正, 개명 李輝正)이다. 서좌보(徐左輔)의 딸과 초혼, 윤수일(尹秀一)의 딸과 재혼했다. 1843년(헌종 9) 문과에 급제하여 1844년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후 호조참의, 이조참판, 예문관 검열, 1856년 이조참의, 평안도 안주목사(安州牧使), 1859년 성균관대사성 등을 거쳐 1861년 2월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다.

32) 퇴운당은 박윤목 등 19세기 금강산을 유람한 문인들의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있었다. 이희와 이민은 사촌지간이다. 이희는 1839년부터 남사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처남 흥한주와 막역했다. 서유영의 회인시(懷人詩) 「이명부취전(李明府翠田)」에도 “해형(흥한주) 서거 후 지음 적으니, 몇 번이나 만나 한 줄기 눈물 흘렸지.[海兄逝後知音少, 幾度相逢一泫然]”라고 한 구절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민은 서유영의 죽질 서좌보의 딸과 혼인을 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서로 인척인 동시에 남사 활동을 통해 문학적으로도 깊은 교분을 맺은 사이였다.

「승려 퇴운당」이 지어진 1853년 여행 역시 이희가 금성에 있었지만, 흥한주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여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둘 다 계절이 가을이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1852년, 혹은 1854년에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가 금성군수에 있었을 때 두 차례의 금강산 유람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적·교통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지인이 해당 구역 관리로 있을 때 유람을 가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서유영이 세 차례 금강산 유람 후 창작한 시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회차	유람일	제목 및 형식	동행인
1	1851년(신해) 여름	「雲阜子東遊記」, 遊記	서승보
2	1852년(임자) 가을, 혹은 1854년(갑인) 가을	「與金城使君翠田及李芸泉, 向金剛山」· 「登須彌塔, 欲訪雲玉屏, 阻雨而返」 5수· 「萬瀑洞」·「佛地菴」·「楡站寺贈別華隱堂」 2수· 「海金剛歸路望見內山積雪」·「玉流洞」· 「飛鳳瀑」·「九龍淵觀瀑布」 등 칠언절구 9제 14수의 연작시	이희·이민· 화은당(미상)
3	1853년(계축) 가을	「釋頽雲堂【金剛山有逢僧】」, 칠언절구, 회인시	윤치정·흥한주· 이희·이민

서유영의 금강산 유람시 중 유독 그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은 「수미

탑에 올라 운옥병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비에 막혀 돌아오다」 5수이다. 이후 이어지는 시들은 여느 문인의 그것과 같이 장소를 묘사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수미탑에서 지은 시는 서유영이 견지한 역사관과 문학관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제1수와 제3수를 아래에 제시한다.

## 제1수

수미고탑 기탑이라 병칭하기에	須彌古塔竝稱奇
내 근원 궁구하러니 그대들 의심치 말게나.	我欲窮源君勿疑
모험을 불사해 시냇가 위 따라가나니	冒險不辭緣澗上
이번 유람은 오수미를 보려던 것이었군.	此行要見五須彌

## 제3수

영랑선자 여기서 노닐었다더니	永郎仙子此中游
붉은 노을 가득 차매 더욱 그윽해지는 골짜기.	滿壑丹霞洞更幽
듣자니 늦은 밤 밝은 달빛 속	聞說夜深明月裡
옥피리 소리 구름 낀 봉우리에서 난다고	玉簫聲在嶺雲頭

수미탑은 내금강에서 가장 큰 암석의 봉우리인 수미봉 아래에 자리한 자연 석탑이다. 수미탑은 1777년(정조 1) 정유(丁酉) 홍수 이후로 전모가 드러나고 골짜기로 통하는 길이 생겨,<sup>33)</sup> 19세기 문인들만 실견하고 글로

33) 李豐翼, 『東遊帖』, 「須彌塔」: 僧言塔之顯, 自丁酉始, 昔之訪是塔者, 皆沿溪, 登水郎帖, 略窺其頂, 而叢薄繆轆, 不能悉見其全體, 亦未甚奇也. 丁酉關東大水, 是塔出焉, 洞府又稍開, 可以肩輿直造其底.

한편 서유영은 1863년(癸亥)음력 3월 그믐 이튿 전 醉石亭 시회에서 이풍익과 함께 했다.(『玉垂集』 卷9, 「醉石亭, 諸詩伴俱會【錢春前二日, 芻玉尙書偕弟悠齋, 往住樂山之醉石亭, 書速諸詩伴. 荷漪任百經·邵亭金永爵·友石李豐翼·蕪堂趙雲卿·玄居林肯洙·雲阜徐有英·蓮史洪秉璋·雨荷張■□·海觀韓命源俱會, 冕與焉, 實近日北東南三社之始混也. 雲泥交席, 苔岑一樽, 而海藏昆季, 不免有燕鴻

남겼다는 특징이 있다.<sup>34)</sup> 수미탑을 행로로 잡은 면모 또한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 서유영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수미탑을 둘러보고 운옥병으로 향하려던 일행은 비를 만나 길을 돌려야 했다. 제1수는 수미탑에서의 상황, 제3수는 비 때문에 가지 못하고 바라만 본 운옥병의 운치를 노래했다. 앞서 논한 흥한 주의 발문 중 ‘근원을 끝까지 궁구하고자 하는’ 서유영의 성향이 제1수의 함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원(窮源)하려는 자세와 결국 공귀(空歸)하게 되는 모양은 불교적 색채가, 영랑선자와 붉은 노을, 옥피리 소리 등의 어휘에서는 도교적 색채가 시에서 짙게 묻어난다. 영랑은 신라 효소왕대(孝昭王代)의 화랑으로, 술랑(述郎)·남랑(南郎)·안상(安詳) 등과 더불어 사선(四仙)으로 꼽힌다. 이들은 금강산과 같은 명승지를 유상하며 심신을 수련하고 도의를 닦아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서유영의 역사관 및 도교 지향적 세계관은 서유영의 시문과 야담, 소설 전반에 걸쳐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에 서유영의 금강산 유람시는 그가 1863년에 지은 한문소설 『육미당기』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육미당

之勢, 可歎也』) 이로써 19세기 경화세족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취향이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34) 서영보(徐榮輔, 1759~1816)가 1806년 9월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풍악기(楓嶽記)>가 대표적이다. 서영보는 서유영보다 나이는 많지만 향렬은 낮다. 선조의 부마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雱, 1579~1643)는 서유영에게 6대조, 서영보에게는 7대조가 된다. 서경주의 아들 서정리(徐貞履, 1599~1664) 아래로부터 계보가 나뉜다. 서영보의 <풍악기>는 당대 문인 지식인들에게 향유되어, 신대우(申大羽)·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심상규(沈象奎)·유득공(柳得恭)·조덕순(趙德純) 등의 평을 수록하여 목판본 1책으로 간행되기까지 하였다. (한민섭, 『『竹石館遺集』 해제-실용과 문예미의 병행, 실무적 관료학자 서영보, 『죽석관유집』 1, 한국고전번역원, 2013.) 당대 대표 문인들의 평을 담은 유람기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풍악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서유영 역시 가내에 전해졌을 <풍악기>를 읽고 유람을 떠났을 확률이 높다.

기』는 문학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만, 본고에서는 『육미당기』의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의 상징성에 주목하여 금강산 유람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유영은 『육미당기』 서두에 신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상히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군이 개국한 이래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교를 이끌어 오랑캐에서 중화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기준 땅에 이르러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점거 당하여 마침내 금마군으로 피하였으니, 이는 마한이 되었다. 그 후 신라의 박혁거세가 진한 땅에 나라를 세웠은즉, 이때 고구려와 백제가 있어 각자 한 모퉁이를 점거하여 삼국이라 불렀다. 그런데 유독 신라는 박·석·김 세 성이 서로 이어 임금이 되어 현성이 잇달아 나오고 인제가 배출되었다. 대당 현경 연간에 이르러 고종황제가 대장 이세적·소정방 등을 파견하여 차례로 고구려·백제를 쳐서 평정하고, 이를 나누어 군현으로 만들었다. 이 때 부터 신라가 통일의 업을 전하여 인경 간에 침벌하는 우환을 없앴으니, 국가가 안락하고 무사태평하였다.<sup>35)</sup>

서유영은 신라로부터 한반도가 통일을 업으로 삼고 전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가의 안정이 유지되었다고 평하였다. ‘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은 특별한 것은 아니나, 앞서 말하였듯 조선 후기 경화세족이 통일신라기를 숭모하는 모습은 자주 확인되는 바이다.

『육미당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신라 소성왕의 태자 김소선(金簫仙)이 부왕의 구병을 위해 남해 보타산에 갔다가 이복형의 습격으로 실

35) 徐有英, 『六美堂記』, 제 1회: 我東自植君開國以來, 至箕子東來都平壤, 始擅文教, 用夷變夏, 傳至箕準, 爲燕人衛滿所據, 遂奔金馬郡, 是爲馬韓, 其後新羅赫居世立國辰韓之地, 時則有高句麗百濟, 各據一隅, 號爲三國, 獨新羅朴昔金三姓, 相傳爲君, 賢聖繼作, 人材輩出, 至大唐顯慶年間, 高宗皇帝遣大將李世績·蘇定方等, 次第削平高句麗百濟, 分篇郡縣, 自此新羅傳一統之業, 無隣境侵伐之患, 國家安樂, 太平無事.

명하고 섬에 혼자 남게 된다. 그때 당덕종(唐德宗)의 명으로 유구왕 책복을 위한 사행에서 돌아오던 백문현(白文賢)이 김소선을 사위로 삼아 데려갔다. 이후 백문현은 간신의 참소로 유배를 가고 소선과 백소저는 떨어지게 되었다. 소선은 통소 숨씨 덕택에 덕종의 총애를 얻고, 모후의 기러기가 보낸 소식을 받고 기빠 시력을 회복한 뒤 공주와 혼인한다. 한편 남장을 하고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백소저는 토번과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감금당한 김소선을 원수가 되어 구하고 금성공주로 책봉되어 둘째부인이 된다. 김소선은 두 공주를 포함해 총 여섯 미녀[六美人]를 아내로 맞고 낙랑왕(樂浪王)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이복형은 개과천선을 했고, 낙랑왕 김소선은 일본의 침범을 물리치고자 에도까지 진격하여 일본 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후 태평성대를 맞이하여 말년에는 육미인과 함께 남해 보타산(寶陀山)에 들어가 승천한다는 영웅담이다. 김소선은 소설 내내 주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왕자진(王子晉)의 후신(後身)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1830년 8월, 서유영은 급서한 익종(翼宗)의 장례 이튿날, 익종이 자신에게 ‘청풍소월(淸風素月)’의 구절을 내린 꿈의 내용을 「감우시(感遇詩)」<sup>36)</sup>로 남겼다. 「감우시」의 익종은 이미 선화(仙化)한 왕자진으로 묘사되었다. 서유영은 이상적인 현군(賢君) 익종과 현사(賢士)인 자신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비통함을 절절히 풀어냈다.<sup>37)</sup> 결국 서유영 문학세계 내에서 ‘김소선-익종-왕자진’이라는 인물이 모두 동일인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소선이 신라의 태자인 점도 중요하다.

서유영은 이러한 배경과 인물 설정을 통해 불교의 윤회관과 신라 기원도교의 선술을 문학적 장치로 활용하여 그의 역사관과 현실 세계의 갈등 등을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36) 徐有英, 『雲臯詩抄』, 「感遇詩【庚寅八月翼宗葬禮, 隔日夢, 入侍應製, 得淸風素月之句, 覺而有感, 足成感遇詩十首詩, 翼宗在春宮代聽時也】」

37) 장효현(2019), 앞의 논문, 276~281쪽.

#### 4. 송도(松都) 기행시

서유영은 송도 기행 후 「새벽에 신촌점을 출발하다【죽형 금천군수, 죽초 오태운과 박연을 유람했다】(曉發新村店【與族兄金川使君·吳竹樵泰雲作朴淵之遊】)」을 시작으로 「달밤에 송도 남문루를 오르다(月夜登松都南門樓)」, 「선죽교(善竹橋)」, 「화담서원에서 천마관으로 향하다(自花潭書院, 向天磨關)」, 「천마관(天馬關)」, 「대흥사(大興寺)」, 「청석관(靑石關)」 등의 오언고시 7수와 칠언절구로 된 「송도잡영(松都雜詠)」 7수를 남겼다.

먼저 「새벽에 신촌점을 출발하다」를 통해 다음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유영은 죽형인 금천(김천)군수,<sup>38)</sup> 죽초 오태운(1790~?)과 함께 신촌점에서 송도 기행을 시작했다. 송도를 유람했을 당시 황해도 금천군은 경기도 개성부에 속해 있었다. 신촌점은 곧 신안역(新安驛)으로, 평안도에 위치한다.

창작 시점은 「송도잡영」의 배치 순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운고시초』는 먼저 시체(詩體)별로 분류한 후, 다시 순차적으로 시를 수록했다. 「송도잡영」은 서유영이 1865년 가을 경상도 의령현감으로 있을 당시 지은 「군재잡영(郡齋雜詠)」 등에 이어 1868년 가을 평안도 삼등(三登)으로 유배를 떠나며 지은 「처음 군을 떠나며(初去郡)」와, 유배지로 가면서 쓴 「내가 삼등으로 유배 가는 길에 패성순사 환재(朴珪壽)와 남동생 온경(朴瑄壽)을 만났는데, 승지가 평안감사 관영을 찾아왔다. 이때에 어린 기녀 은섬이 비파를 잘 타기에 즉석에서 절구 하나를 지어 읊조리고 주었다(余謫三登之路, 迂入溟城巡使桓齋與季方溫卿, 承宣來訪於管餉堂, 時童妓銀善馨彈琵琶, 卽席賦一絕呻贈)」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서유영의 송도 기행

38) 죽형에 대한 인물 정보는 미상. 다만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 57-가527]) 및 『승정원일기』 고종 5년 7월 14일, 6년 4월 11일 기사 등을 보면, 1868년 금천군수는 박제홍(朴齊鴻)이었다.

시는 1868년(무진) 유배지를 향하며 창작된 유배기행문학에 해당된다.

위의 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기행일정은 ‘신안역-박연폭포-송도남문루-선죽교-화답서원-천마관-대홍사-청석관’이다. 1861년(신유)에 제작된 목판본 <대동여지도>(奎10333)를 살펴보면, 경기도 개성부 북서쪽에는 청석 일대가 있다. 이곳은 지금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의 박연리 일대로, 조선시대에 개성과 금천의 경계에 있던 청석관 관문이 있던 곳이다. 개성부 송악산 북쪽 산록에서 발원한 하천이 북서쪽으로 흘러 예성강으로 유입되고 일대의 산줄기는 청석관을 에워 두르는 지형이다. 이곳은 고려시대 서북 지방에서 수도인 개성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북쪽 산지에 성곽이 있었다. 동쪽의 대흥진(大興鎭)은 험준한 산지에 입지해 있었다.<sup>39)</sup> 대흥산성은 개성의 천마산(天摩山)과 성거산(聖居山)을 연결하여 쌓았는데, 박연폭포는 천마산 북쪽 기슭에서부터 이들 봉우리와 성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른다. 황진이와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를 일러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한다. 서경덕은 개성의 송양서원(崇陽書院)과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되었다. 서유영은 이들 유적지를 답사하며 촉발된 감흥을 읊었다.

아래는 서유영의 악부시 중 단연 으뜸인 「송도잡영」과 「달밤에 송도 남문루를 오르다.」이다.

「송도잡영」

제1수

송경에 이르니 10리 별판이라	行到松京十里坪
길가 깎아지른 바위 등걸로 만들었네.	途傍斷石作燈檠
문득 피리소리 따라 다리 주변 바라보니	却從吹笛橋邊望

39) 김기혁 외, 『규장각 소장 고지도로 조선시대를 살아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48쪽.

하늘가 여러 봉우리 푸른 병풍 벌였네. 天畔諸峯列翠屏

제2수

성곽 외 시골밭 도처에 구불구불하고 郭外邱園到處斜  
 수목 전혀 없이 삼만 심었네. 都無樹木種芑麻  
 지금은 쇠락한 터로 소와 양만 드나드나 卽今墟落牛羊路  
 이는 모두 고려의 부촌이었다지. 盡是前朝富貴家

제3수

남루의 노을 수심 찬 안개에 갇히고 南樓暮色鎖愁煙  
 보름달 황량하니 배로 어두워라. 滿月荒涼倍黯然  
 그 당시 노래하고 춤추던 곳이라 爲是當時歌舞地  
 종소리 예전처럼 산천을 두르노라. 鐘聲依舊繞山川

제4수

팔관대회 봉희 열리고 八關大會陳棚戲  
 그 옛날엔 구정<sup>40</sup>)에서 만 명 반승<sup>41</sup>)도 열렸지. 伊昔毳庭飯萬僧  
 누런 잎 푸른 솔<sup>42</sup>) 모두 삭막해졌으니 黃葉青松俱索漠

40) 고려 시대 궁궐의 회경전(會慶殿)과 승평문(昇平門) 사이에 위치했던 연경궁(延慶宮)의 큰 뜰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격구를 행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사』에는 초제(醮祭), 반승, 팔관회 등의 종교 행사와 열병식 등 각종 행사들이 열렸다.

41) 승려들에게 식사를 베푸는 불교 행사이다. 승려를 공경하는 뜻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불교가 유입되면서 시작되었고, 고려 시대에 더욱 성행하였다. 사찰의 낙성 또는 불상의 조성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법회 등은 물론 왕실에서 큰 법회를 열 때마다 행했다. 1018년(顯宗 9) 5월에 왕이 10만 명을 반승하였다.

42) 『동국통감(東國通鑑)』에 “고려 현종 경신 11년(1020)에 신라의 집사성시랑 최치원을 내사령에 추증하고, 선성(先聖)의 묘정에 종사하게 하였다. 당초 태조가 잡져 있을 적에 고운이 보낸 글 중에 “계림에는 누런 잎 지고, 곡령에는 솔이 푸르다.[雞林黃葉, 鶴嶺青松]”라는 구절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청송은 새로이 흥기하는 고려를, 황엽은 시들어 가는 신라에 비유한 참언이라는 내용이다. 곡령은 개경 송악



바른 기운 천년토록 쇠할 수 없으니	正氣千年消不得
지금도 푸른 피 <sup>46)</sup> 새로 흘린 듯하네.	至今碧血宛如新

제7수

용감한 명장 <sup>47)</sup> 강감찬	矯矯名臣姜邯贊
세상에 전하길 문곡성이 전신이라지. <sup>48)</sup>	世傳文曲是前身
천하를 다스리는 사업 누가 능히 계승하리	經綸事業誰能繼
마땅히 고려조 제일인에게 돌아가야지.	當屬麗朝第一人

「달밤에 송도 남문루를 오르다」는 「송도잡영」 제2·3수와, 「선죽교」는 제6수와 내용과 어휘가 상통하므로 같이 살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달밤에 송도 남문루를 오르다」만을 다루기로 한다.

송악산 울창히 드높고 고도는 밤 연기 끼었네.  
 성곽의 반쯤 무너진 흙담에 수심 어린 구름은 항상 어둡구나.  
 밝은 달 길거리 비추고 노래 소리 시장을 시끄럽게 채우네.  
 남루에서 저녁 종 울리니 메아리 산천을 휘감누나.  
 옛 성대했던 고려조 떠올리자니 오백년 변화했어라.

46) 푸른 피[碧血]는 주나라 대부 장홍(襄弘)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장홍은 경왕(景王)·경왕(敬王) 때 귀족 유문공(劉文公)을 섬기면서 진(晉)의 범씨(范氏) 집안과 사돈 관계였다. 이 때문에 진의 내홍 중 장홍이 범씨를 도왔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조양(趙鞅)이 성도하여 주왕으로 하여금 장홍을 죽이게 했다. 주나라에서 충성을 바치고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의 피를 께 속에 담아두었더니 3년 만에 푸른 옥으로 변했다고 한다.([春秋左氏傳] 哀公3年)

47) 용감무쌍한 무장을 일컫는 말이다. “용감한 장군이 반궁에 와 베어 온 적의 목을 바치고, 고도와 같은 재판관이 반궁에서 포로들을 심판하누나.[矯矯虎臣, 在泮獻馘, 淑問如臯陶, 在泮獻囚]”라는 구절이 있다.([詩經·魯頌] 「泮水」).

48) 『고려사』 권94 열전 「강감찬」에, 강감찬이 재상이 되었을 때, 송나라 사신이 그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배하며 “문곡성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더니,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文曲星不見久矣, 今在此耶!]”라고 하였다.

훈벌은 유강이 최고였고 문장은 가목이 뛰어났다.<sup>49)</sup>  
 슬프구나! 인간사 다 변하니 오직 황량한 길만 눈에 가득하여라.  
 적막한 고궁의 길은 막혀서 눈발이 되었구나.<sup>50)</sup>  
 옛 흔적 만나면 누구에게 물으랴, 세상 수시로 변하고 옮겨가나니.  
 오직 숭양묘<sup>51)</sup>만 남아 붉은 층정 만고에 전하노라.

松嶽鬱岩嶢, 古都生夜煙.  
 成郭半頽圯, 愁雲常黯然.  
 明月照通衢, 歌吹喧市塵.  
 南樓聲暮鍾, 餘響繞山川.  
 憶昔麗朝盛, 繁華五百年.  
 勳閥庾姜最, 文章稼牧賢.  
 所嗟人事變, 滿目但荒阡.  
 寂寞故宮路, 鞠爲禾黍田.  
 逢跡憑誰問? 世移時屢遷.  
 惟有崇陽廟, 丹忠萬古傳.

서유영의 송도 기행시는 명승의 뛰어난 경관보다 역사적 사실만을 토대로 지역성을 부각시키는 점, 회고시의 전형적 감수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49) 유강은 고려의 호족 평산유씨(平山庾氏)와 금주강씨(衿州姜氏)를, 가목은 가정 이곡(稼亭 李穀)과 목은 이색(牧隱 李穡) 부자를 뜻한다.

50) 『시경 소아(詩經·小雅)』 「소변(小弁)」을 인용한 것으로, 태자의 사부가 유왕을 풍자하여 지은 것이다. “평탄한 큰길이어, 막혀서 무성한 풀밭이 되었구나. 내 마음의 근심이여, 서글픔에 방아질 하는 듯하노라.[蹶蹶周道, 鞠爲茂草, 我心憂傷, 惄焉如擣]”라는 구절이 보인다. <모전(毛傳)>에 “국은 막힘이다.[鞠, 窮也]”라 하였다.

51) 숭양서원을 뜻한다. 개성시 선죽동에 있다. 1573년(선조6) 개성 유수 남응운(南應雲)이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고 서경덕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개성 선죽교 위쪽 정몽주의 집터에 서원을 세우고 문충당(文忠堂)이라 하였다. 1575년(선조8) 조정에서 ‘숭양을 사액했다.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제현(李齊賢)의 「송도팔경(松都八景)」과 같이 송경을 감상하고 예찬하는 ‘팔경시’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서유영은 오히려 흥왕했던 고려의 옛 모습 대신 퇴락한 성의 모습에 탄식한다. 시간적 배경도 해가 저물 때를 묘사했다.

이러한 양상은 서유영이 유배를 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때문에 남루의 노을은 수심에 가득 찼고, 반쯤 허물어진 성곽을 조명하고, 가축 때만 남은 옛 고려의 부춘과 돌무더기만 남은 구정 등 퇴락한 옛 도읍지의 모습을 애처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모든 것이 변한 지금, 오직 변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은 충절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체를 ‘잡영’과 ‘오언고시’로 잡은 것도 일반적 ‘팔경시’나 ‘경물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잡영’은 길이나 편수에 구애받지 않고 대주제 아래 소재를 바꿔가며 시상을 이어간다. <송도잡영>은 ‘송도’를 기행하면서 접한 장소와 그곳에서 발한 감흥 등을 자유롭게 묘사하기 위하여 시체를 ‘잡영’을 선택했다. ‘오언고시’ 또한 1개 시 안에서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언과 운을 유지하며 시상을 전개할 수 있다. 오언고시 연작시는 구체적 장소를 주제로, <송도잡영>에서 다 풀지 못한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했다.

서유영이 악부시와 죽지사를 창작한 것은 유득공(柳得恭)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日懷古詩)』에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sup>52)</sup> 송도 기행의 내용적·표현적 특성은 『이십일도회고시』와 완전히 부합한다. 제5수의 우왕의 출생설, 최치원의 시구 인용 등도 『이십일도회고시』의 <신라>, <고려>목의 내용과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52) 洪翰周, 『海翁詩藁』 卷2, 「病枕無聊, 偶得絕句十二首, 雖無藻思工緻之可稱, 亦足以續前者未盡之懷, 兄須覽而和之, 又轉致石湖否, 肝肺曾從畏友傾, 春風斗語平生, 風流不減當年事, 又得新詩字字清」; <其二> 先自吳園唱小詩, 松陵皮陵雅相宜. 東韓樂府無多在, 會見徐卿演竹枝. 【雲臺要余做柳冷齋懷古, 賦海東竹枝詞故云爾】

『육미당기』 서문에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초기 역사나 삼국의 역사에 대한 정보 또한 『이십일도회고시』를 참고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우왕의 출생 설화에 대해서는 유득공과 서유영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유득공의 경우, “신우의 어릴 적 이름은 모니노(牟尼奴)이고 신돈의 비첩 반야의 소생이다.”라고 설명하는 데에 그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서유영은 원천석의 글을 인용하여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고 있다. 『지수염필』의 「원천석누사(元天錫淚史)」목에도 서유영의 시와 비슷한 논조와 구절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홍한주와 서유영이 같은 책을 읽고 동일한 역사관을 공유했음을 시사한다. 홍한주의 『누사』는 박동량(朴東亮)이 편했다는 1책 짜리 『시사(詩史)』를 뜻할 확률이 높다.

옛날의 의심스런 일은 정사를 따라야 하고, 정사가 의심이 가면 폐사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사와 폐사가 모두 의심스러운 경우, 우리는 어디에서 믿을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 오직 고려 우왕·창왕의 일은 이전 사람들과 그 당시의 논의가 모두 단정적으로 신씨라고 하고 있다. ... 그러나 운곡 원천석은 『누사』를 지어 그것이 거짓임을 변증하였으니, 뒷날의 군자들이 또한 먼 뒷날에는 운곡을 따라 그 의문점을 따지게 될는지 지금으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 의심나는 일은 제외해두라고 하지만, 정말로 천고에 결론을 짓지 못할 큰 안건이다.<sup>53)</sup>

한편, 서유영이 고려에 대해 긍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53) 洪翰周, 『智水拈筆』 卷4, 「元天錫淚史」: 古之疑事, 當從正史, 而正史可疑, 則又當從稗史, 若正稗皆有可疑, 則吾又將安所徵信也? ... 惟勝國耦昌之事, 前輩其時之論, 皆斷以篇辛氏. ... 然元耘谷天錫有淚史, 以辨其僞, 後之君子, 又以鳥百世之下, 當從耘谷論其疑, 至今未定矣. ... 雖曰疑者闕之, 洵爲千古未斷之大案也.

끈다. 보통 이전 왕조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현 왕조를 높이는 자세를 취하기 마련인데, 서유영은 정몽주와 강감찬은 물론이거니와, 팔관회나 봉희, 반승 등의 불교행사 또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우왕이 공민왕의 친아들이라는 설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도 기행시는 유배 도중이라는 상황과 더불어 서유영이 견지해 온 역사관이 더해진 결과물로 남다른 비장미가 돋보인다. 고려 왕도의 웅장하고 화려했던 면모는 사라지고, 노을 아래 일부 무너진 성벽만큼 퇴락한 송도 곳곳에 서유영은 애환과 애정 어린 시선을 두었다. 정몽주와 강감찬의 충성심을 언급한 것은 비록 유배를 떠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비유하기 위함이었다.

## 5. 결론

19세기 문학사에서 서유영은 시문, 소설, 야담 등 모든 영역을 아울러 뛰어나고 중요한 작품을 쏟아낸 작가이다. 그러나 각 장르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서유영의 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중 기행시는 『운고시초』 내에서도 높은 분량을 차지함과 동시에, 서유영의 문학관 및 생애를 아울러 확인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본고는 서유영 문학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기행시들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임한정 기행시는 서유영의 남사 활동과 지아자에 대한 욕망이 특정 장소에 발현된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총 세 차례의 여정을 통해 창작한 금강산 기행시는 신라 기원 도교와 불교적 색채가 짙은 그의 문학관이 확인된다. 송도 기행시는 유배 도중이라는 특정 시기와 고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함께 반영되어, 명승 경관보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지역성을 부

각시꼴다는 특징이 있다.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를 계승하였다는 점도 주요하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서유영 기행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수가 해동악부·죽지사·잡영으로 악부시에 속한다. 둘째, 기행의 성격은 관유기행과 유배기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동행인들이 대부분 시사의 동인들로, 시회의 현장에서 창작되었다.

서유영의 기행시는 본고를 통해 처음으로 조명되는 바이다. 본고는 그간 학계에서 제대로 주목 받지 못했던 서유영의 시세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살피며 남사를 비롯한 19세기 경화세족 시사 활동의 구체적 정경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구한다. 서유영의 깊은 사유와 애정이 담긴 장소들에 대한 연구에도 본고의 작업이 일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徐有英, 『錦溪筆談』  
\_\_\_\_\_, 『雲臯詩抄』  
\_\_\_\_\_, 『六美堂記』  
沈能淑, 『後吾知可』  
李豐灑, 『東遊帖』  
洪奭周, 『海翁詩藁』  
洪良浩, 『耳溪集』  
洪翰周, 『海翁詩藁』  
\_\_\_\_\_, 『智水拈筆』

- 김기혁 외, 『규장각 소장 고지도로 조선시대를 살아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2, 1~293쪽.
- 민선홍, 「19세기 전반 서유영의 新興寺 행적과 詩交」, 『한국한문학연구』 86, 한국한문학회, 2022, 327~366쪽.
- 박우훈, 「雲臯 徐有英의 《玲瓏詩集》 연구」, 『동아인문학』 14, 동아인문학회, 2008, 211~237쪽.
- 박조운, 「雲臯 徐有英의 懷人詩一考」, 『온지논총』 45, 온지학회, 2015, 9~37쪽.
- 심경호, 「조선후기 한시의 자의식적 경향과 해동악부체」, 『한국문화』 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1, 19~57쪽.
-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동호편』, 경인문화사, 2016, 1~320쪽.
- 이흥두, 「조선전기畿甸의 馬牧場 설치」, 『서울과 역사』 93, 서울역사편찬원, 2016, 7~36쪽.
- 장효현, 「『육미당기』의 작자 재론」,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2, 244~258쪽.
- \_\_\_\_\_,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1~300쪽.
- \_\_\_\_\_, 「徐有英 文學의 研究 補論」,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269~305쪽.
- 진민희, 『沈能淑의 楠臯詩社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85쪽.
- \_\_\_\_\_, 「19세기 서울 ‘중기 南社’의 결성과 활동 양상」, 『규장각』 6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195~231쪽.
- 한민섭, 『竹石館遺集』 해제 - 실용과 문예미의 병행, 실무적 관료학자 서영보』,

『죽석관유집』 1, 한국고전번역원, 2013, 1~620쪽.

홍금수, 「箭串場の 景觀變化」, 『문화역사지리』 1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102~134쪽.

노주석, 「몽골 말과 조선 활로 무장한 ‘궁기병’ 육성의 흔적」, 『한겨레-서울&』, 2018.05.31.

## ABSTRACT

A Study on Sŏ Yu-yŏng's (徐有英) Journey Poems  
 - Focusing on the Poems of Imhanjŏng (臨漢亭), Mount Kŭmgang (金剛山),  
 and Songdo (松都)

Jin, Min-hui

The literary contributions of Sŏ Yu-yŏng (徐有英, 1801-1876?) hold an undisputedly promine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19th-century Korean literature, demonstrating remarkable breadth and sophistication. Furthermore, his life and social interaction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intellectual networks of his time. However, compared to studies on his novel *Yukmidanggi* (六美堂記) and his vernacular *Kŭmkye P'ilt'am* (錦溪筆談), research focusing on his poetic works remains notably underdeveloped.

This paper investigates one aspect of Sŏ's poetic work by analyzing his journey poems, particularly those found in *Unko Sicho* (雲阜詩抄). These poems exhibit three key characteristics. First, many belong to the Akpu (樂府) poetic tradition, including subcategories such as Haedong Akpu (海東樂府), Chukji sa (竹枝詞), and Chap'yŏng (雜詠).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ravel literatur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observational travel accounts (kwanyu kihaeng, 觀遊紀行) and exile journeys (yup'ae kihaeng, 流配紀行). Third, these poems were often composed during poetry gatherings and involve fellow members of literary societies.

The analysis examines a series of journey poems depicting Sŏ's experiences visiting Imhanjŏng (臨漢亭), Mount Kŭmgang (金剛山), and Songdo (松都), representing his engagement with literary societies, observational travel, and exile journey. The Imhanjŏng poems reflect Sŏ's participation in the Nam-Sa (南社) and his desire for "one who truly understands him" (chiaja, 知我者), both conveyed through specific locales. The poems from Mount Kŭmgang, composed during three journeys, reveal

a literary worldview deeply influenced by Taoist influences from Silla (新羅) and Buddhist ideologies. Meanwhile, the poems from Songdo, written during his exile, emphasize regional identity and historical narratives over the scenic beauty of the landmarks, drawing a connection to Yu Tük-kong's (柳得恭) *Isibil-to Hoegosi* (二十一都懷古詩).

This study fills a critical gap in scholarship by bringing attention to Sŏ Yu-yŏng's poetic works, which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reconstructing the literary and cultural activities of 19th-century Kyŏnghwa sejok (京華世族), particularly their participation in poetic societies such as the Nam-Sa. For the first time, Sŏ's travel poetry is examined in detail, offering fresh insights into the places imbued with his profound thought and emotional depth. This paper also seeks to support further research on Sŏ's attachment to and reflections on specific locations, enriching the broader understanding of 19th-century Korean literary culture.

**Key Words** Sŏ Yu-yŏng (徐有英), *Unko Sicho* (雲臯詩抄), journey poetry (紀行詩), Haedong Akpu (海東樂府), 19th century, Kyŏnghwa sejok (京華世族), Nam-Sa (南社)

논문투고일: 2024.12.31. 심사완료일: 2025.02.10. 게재확정일: 2025.02.11.
--

